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관광 주도한다

- 4. 28. ‘2026 두레함께 데이’ 개최, 관광두레 사업체와 여행업계 협력 도모
- 추경 예산으로 ‘청년 관광두레’ 본격 추진, 청년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8일(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6 두레함께 데이(DAY)’를 열고,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와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행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관광’에서 ‘시장에서 통하는 관광’으로 전환

문체부는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자생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여행업계 간 1:1 상담, 지역 관광상품 전시 및 판로 연계 등을 통해 수익 창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또한 행사 이후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민·청년이 이끄는 ‘관광두레’, 지역관광의 판 바꾼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약 31억 원)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든 관광콘텐츠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행 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관광콘텐츠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이 관광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두레함께데이(DAY)’ 포스터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산업진흥과	책임자	과장	장석인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이성희 (044-203-2828)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파트	책임자	파트장	명세원 (02-729-9586)
		담당자	대리	유심연 (02-729-9530)



두레
관광두레

2026 두레함께 DAY

일 자

2026년 4월 28일(화)

장 소

콘래드 서울 호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